광림교회
KWANGLIM CHURCH
등록번호 다-467 / 발행인 김정석
발행처 광림교회 서울 강남구
논현로 175길 49 TEL 2056-5600
www.klmc.church

광림 뉴스레터
KWANGLIM NEWSLETTER

주일예배 설교
음성서비스
Apple Podcasts 팟캐스트
Spotify 스포티파이
팟빵 오디오클립

전교인 여름수련회 "더 깊은 은혜의 바다로"

8월 11일(주일) ~ 13일(화) 본당과 지교회에서 열려

"전교인 여름수련회를 통해 주님은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주실 분임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시길 소망하며 더 깊은 은혜의 바다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무더위에 지친 성도들의 영혼을 시원하게 해줄 전교인 여름수련회가 오늘 저녁 7시 10분부터 시작된다.
2024년 여름수련회는 '더 깊은 은혜의 바다로'(계 22:21)라는 주제로 광림교회 본당 대예배실과 광림남교회, 광림북교회, 동탄광림교회에서 동시에 열린다.
광림의 성도들은 지난 36회 호렙산 기도회를 통해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은혜 가운데 바라보았다.
이번에는 전교인 여름수련회로 성도들의 영적 갈급함을 말씀의 생수로 시원케 할 것이다. 5번의 집회로 진행되는 여름수련회는 전 경기연회 감독이며 현 기독교문화원 이사장인 김철한 목사(오목천교회 원로목사)가 말씀을 전한다.

8월 11일(주일) 전교인 여름수련회 첫날 저녁 예배는 김정석 담임목사의 사회로 유다지파, LF미니스트리 연합의 뜨거운 찬양과 '인도하시는 하나님'(신 1:30~33)이라는 주제로 말씀이 전해진다. 둘째 날 8월 12일(월)부터 셋째 날 8월 13일(화)까지는 새벽 4시 45분, 저녁 7시 10분에 성령 충만한 예배가 진행된다.

전교인 여름수련회를 앞두고 김정석 담임목사는 "하나님은 지난 36회 호렙산 기도회를 통해 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이번 전교인 여름수련회를 통해 주님은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주실 분임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붙잡힐 때 결국 우리 인생은 바뀔 수 있습니다. 기적의 출처,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광림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시길 소망하며 더 깊은 은혜의 바다, 전교인 여름수련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라며 심령의 시원함을 얻는 은혜의 자리로 참석을 권면했다.

둘째 날인 8월 12일(월) 새벽에는 '금향로에 담긴 성도의 기도'(계 8:1~6), 저녁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권세'(마 21:18~22)라는 주제 말씀과 셋째 날 8월 13일(화) 새벽에는 '그리스도인의 존귀함과 정체성'(시 16:3)과 저녁에는 '하나님의 산수'(요 6:5~13)라는 주제로 성도들에게 은혜로운 말씀이 전해진다.
교회학교에서는 여름수련회 기간 동안 아이돌봄 서비스를 운영하며 자녀들과 함께한다. 취학 아동은 사회봉사관 4층 컨벤션홀, 미취학 아동은 3층 영아부실에서 저녁 집회 시작 30분 전부터 예배 종료 시까지 테마별 돌봄 서비스가 진행된다. 또한 기드온선교회에서도 여름수련회 기간 동안 차량 안내 봉사를 하고, 성도들을 위해 각 지역별로 교회 버스가 운행될 예정이며 자세한 노선 안내와 시간은 주보에 게재되어 있다.

광림교회는 매년 봄·가을 트리니티 성경 공부와 호렙산 기도회, 전교인 여름수련회로 영성 흐름을 이어 가며 성도들의 믿음 성장과 영적 호흡을 함께하고 있다.

이상희 기자

2 광림의 강단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살아가라
3 광림 스토리 광림북교회, 동탄광림교회
4 하나님을 만나다 사랑부 여름수련회
5 다음세대 청년부 국내교육선교
8 복음, 문화와 만나다 한눈에 명화로 보는 신약성경 이야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살아가라

"...그 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사 6:8)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기본적인 욕망인 '육체적 욕망', '지적 욕망', '인식적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욕망들 중에 우리가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은 '인식적 욕망'입니다. 사람은 주변인을 통해 자신을 인식하며 자기 존재에 대한 확신을 얻습니다. 그렇기에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자신에 대한 말을 듣는 것을 좋아하며, 들음으로써 자신에 대한 가치를 확인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하나님을 통한 자기 인식으로 귀하게 쓰임 받은 한 사람, 50년의 긴 시간 동안 유대를 통치했던 웃시야 왕이 등장합니다. 그가 통치한 시대에는 정치적으로 평화롭고 사회적으로도 안정되었으며, 백성은 신앙 가운데서 그를 잘 따랐습니다. 그런데 본문 1절은 "웃시야 왕이 죽던 해에"라는 기록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백성에게 존경받던 웃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그의 공백으로부터 나라는 점점 타락해져갔고, 이웃 나라들의 침략과 각종 유혹에 시달리며 유다 왕국은 존폐의 위험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시국에 이사야는 자신의 개인적인 불안과 국가적인 위기를 품고 성전에 나아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사야는 큰 어려움 속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예배를 귀히 여기시고 그를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이처럼 '예배'는 주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새로운 소망의 삶을 보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새로운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6:1~10

1.웃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2.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3.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4.이 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5.그 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뵈었음이로다 하였더라 6.그 때에 그 스랍 중의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7.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8.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 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9.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10.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첫째, 예배는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2절). 이사야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신학자 하비 콕스(Harvey Cox)는 「세속도시」라는 책에서 이와 같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빈곤과 타락과 엄청난 세속도시에 살아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공의와 평화를 이루어가기 위해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일하시며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2차 세계 대전 당시, 유대인들은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에 갇혀 많은 동료들의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절망 속에서 온몸을 떨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내버려 두십니까?"
전쟁이 끝난 후, 연합군 병사가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점검하면서 우연히 담벼락에 쓰인 글을 보게 됩니다. 그 글은 찬송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의 가사였습니다. 그리고 담벼락에 쓰여진 가사 밑에 이어서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시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울부짖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했습니다.
예배는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가실 것을 소망하며, 절망 가운데서도 믿음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이제껏 불평했던 자신의 허물을 보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5절). 예배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 빛 아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고 한탄했던 자신의 부정한 모습을 참회하고 회개합니다. 예배는 단순히 찬양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선포된 말씀으로 죄를 사함 받았음을 고백하며 새로운 존재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유명 오케스트라 지휘자인 토스카니니(Arturo Toscanini)는 오케스트라 단원들을 연습시킬 때 폭군과도 같았습니다.
어느 날, 베토벤 교향곡 9번을 연주하는데 토스카니니가 단원들을 혹독하게 연습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당일 연주는 훌륭하게 끝났고, 청중들은 기립박수와 환호성을 보냈습니다. 단원들은 자신의 연주에 흡족해하며, 지휘자인 토스카니니가 자신들의 노고를 칭찬해 주기를 기대하였습니다. 잠시후, 토스카니니가 나타나고 그가 단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오직 이 연주의 영광은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베토벤만이 받아야 마땅합니다."
토스카니니는 연주의 주관자를 자신과 단원들이 아니라 이 곡을 작곡한 베토벤으로 생각하며 연주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주관자는 누구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게 되며, 새로운 존재로서의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셋째,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존재로 새롭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죄 사함을 경험한 이사야는 다음과 같이 즉각적이고 순종적인 고백을 합니다. "그 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8절).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필요한 존재인지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적인 응답을 합니다. 이처럼 예배는 우리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줍니다.

신학자 칼 폴 라인홀드 니부어(Karl Paul Reinhold Niebuhr)는 그리스도인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존재와 의미를 발견한 사람."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자신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은 온 세상의 사람들이 자신을 버려도 하나님의 사랑이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습니다. 그리고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사명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유대인 명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옆도 막혔는가? 그렇다면 위를 바라보라."
앞뒤가 꽉 막힌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쉽게 절망과 좌절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미래는 어둠이 아닌 빛이요, 절망이 아닌 소망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 모든 상황을 초월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새로운 존재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이 되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광림교회 담임목사 김 정 석
kwanglim-sp@hanmail.net

김정석 담임목사의 설교는 광림교회 홈페이지(www.klmc.church) 및 유튜브에서 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광림교회 주일설교를 팟캐스트를 통해 청취할 수 있습니다.

몽골 유학생들에게 사랑의 장학금 전달

광림북교회 창립 6주년 기념예배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 봉헌 6주년을 맞이하는 광림북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광림북교회는 봉헌 6주년을 맞아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의정부 신한대학교 내 몽골인 유학생들에게 사랑의 장학금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현재 의정부 신한대학교 내에는 몽골에서 꿈을 가지고 한국으로 온 유학생들이 약 100여 명이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이미 몽골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다시 한국에서 새로운 학업에 도전하고자 온 이들과 한국에서 전공 분야를 발전시켜서 더 큰 세계 무대로 나아가는 꿈을 가진 이들, 이제 막 성인이 되자마자 유학 온 학생들까지 다양한 몽골 청년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중 한 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광림북교회 몽골어 예배에 참석하기 시작하였고, 신한대학교 내 몽골인 유학생들에 대한 상황을 듣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유학생들은 금전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형편에서 학업을 이어가고 있고, 학비에 대한 부담은 물론 생활비에 대한 부담도 크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광림북교회에서는 사랑의 장학금 모금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 사랑의 장학금이 의정부 신한대학교 내 몽골 유학생 커뮤니티와 연결되는 계기가 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유학생들이 광림북교회 몽골어 예배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도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신한대학교 내에 몽골어 예배 모임이 생겨, 광림북교회 몽골어 예배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광림북교회가 몽골 선교 현장에 직접 가지는 못하더라도, 한국에 들어온 몽골 유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이 변화되어, 몽골 땅으로 들어가 복음을 전파하는 일들이 나타나길 기대합니다. 한국에 들어와 성실하게 배움을 실천하는 학생들이 글로벌 인재로,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길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우진 목사(광림북교회)

믿음과 열정으로 성장하는 젊은 교회

동탄광림교회 창립 1주년 기념예배

동탄광림교회는 지난 8월 4일(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창립 1주년 기념예배를 드렸다.

히엘찬양단의 예배 전 찬양은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에 충분했다. 교회학교 학생들은 우렁찬 찬양과 앙증맞은 율동으로 예배와 축제의 시작을 알렸다. 또 영상 자료를 통하여 지나온 1년을 되돌아볼 수 있었으며, 동탄광림교회 갈릴리성가대의 은혜로운 찬양이 이어졌다.

특별히 호렙산 40일의 여정에서 영상으로 큰 은혜를 받았던 성도들이 김정석 담임목사의 말씀을 가까이서 직접 들을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자리를 가득 메웠다.

김정석 담임목사는 "창립 1주년 만에 성전을 가득 채운 성도님들의 모습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동탄 지역이 복음화되어 구원의 뜻을 이루는 성전이 되기를 바라며,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길 축복합니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제1회 동탄광림교회 유아세례예식에서는 75교구 김영선 성도, 박주희 성도의 딸 김태리 어린이의 세례예식이 거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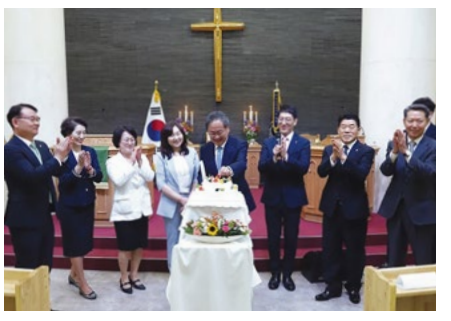
동탄광림교회는 2023년 7월 23일 봉헌예배를 드렸다. 광림교회의 70주년을 기념하고, 경기 남부 지역의 선교를 위한 전진기지로 삼고자 김정석 담임목사의 간절한 기도와 광림 성도들의 헌신과 사랑으로 봉헌되었다.

동탄 성전은 현재 주일 오전 약 200여 명의 성도들(성인 160명, 교회학교 40명)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 지난 1년간 약 170명의 새가족들이 등록했고, 그중 80% 이상이 새가족 교육을 받고, 성도로 정착했다. 속회와 남녀선교회, 교회학교, 갈릴리성가대, 주차 방송 봉사, 애찬관 봉사, 청년부, 히엘찬양단, 꽃꽂이선교회까지 지난 1년간 동탄 성전의 성도들은 몸 된 교회를 세워가는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해 왔다. 특별히, 작년 연말에는 창립 5개월 만에 광림 선교구 성가제에서 대상을 받는 결실을 얻었다.

30 ~ 40대가 가장 많은 지역, 인구 유입이 가장 많은 지역, 초중고 과밀학급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젊은 동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김정석 담임목사의 비전이 이제 첫걸음을 내디뎠다.

유제석 목사(동탄광림교회 담당)는 "교육부 서실 확장, 주차 환경 개선, 십자가 봉헌, 제습 청정 시설 확충까지 건축 이후 동탄 성전이 온전한 예배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담임목사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광림 성도님들이 보여주신 사랑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동탄을 넘어서 경기 남부 지역의 선교를 위한 전진기지로서 역할을 감당하며, 모두 하나 되어 빛의 숲 광림 안에 하나의 기둥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이정순 기자



포토 뉴스

남선교회, 청년부 봉사 현장 방문
8월 3일(토), 남선교회는 강화도 온수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는 청년부 국내교육선교팀을 격려차 방문했다.

제1회 동탄광림교회 유아세례식
8월 4일(주일) 제1회 유아세례식이 거행되었다.

여선교회 8월 월례회
8월 4일(주일) 본당 대예배실에서 8월 월례회를 개최했다.

담임목사 동정

8/4	동탄광림교회 1주년 예배
8/11	광복절 기념주일
8/11~13	전교인 여름수련회

광림교회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www.klmc.church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모인 사랑부 여름성경학교

8월 3일(토) ~ 4일(주일) 비전랜드에서 열려

사랑부(위원장 우형진 장로) 여름성경학교가 8월 3일(토) ~ 4일(주일)까지 국제광림비전랜드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삼상 3:10)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개회 예배를 시작으로 물놀이, 축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는데, 맑은 날씨 속에서 물놀이와 축구를 하며 에너지를 쏟고, 달콤한 수박을 간식으로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저녁 집회에서는 찬양을 사랑하는 많은 학생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전심으로 함께 뛰고 율동하며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랑부 학생들은 진선규 목사(사랑부)의 설교 말씀에 집중하며 어린 사무엘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부르시고 어떻게 부르시며 왜 부르시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고백했다.
이어 기도 시간에는 학생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했고, 교사들은 학생들을 위해 간절한 기도를 보탰다.

기도를 마치고 사랑부 지체들이 가장 기대했던 프로그램 중 하나인 캠프파이어 시간이 이어졌다. LED 캔들 야광 팔찌를 착용한 사랑부 학생들은 기타 반주에 맞춰 신나게 찬양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사랑부 학생들이 이 세상에서 분명하게 빛나기를 바란다는 의미로, 어두운 밤에 피어오르는 불꽃과 학생들이 내뿜는 형형색색의 빛이 참으로 아름다웠다.
이튿날에는 주일 성찬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을 기억하는 시간을 가졌다. 삶의 모든 순간에서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닮아가는 우리가 되겠다고 고백하며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했다.

예배 후 다양한 말씀 체험 행사를 진행했다. 여러 가지 장애물을 넘은 학생들에게 사랑부 담당 목사와 위원장이 기름을 바르며 중보기도함으로 축복해 주는 시간을 가졌다.
또 장막에 들어갔다가 나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는 어린 사무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 등 1박 2일 동안 배웠던 말씀을 오감으로 체험하고 기억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형진 장로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사랑부 여름성경학교를 건강하고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신 하나님과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광림의 교우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여름성경학교 주제처럼 사랑부 학생과 교사는 부르신 자리에서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김다빈 전도사(사랑부)

생기를 회복케 하는 2024 남선교회 여름수련회

남선교회총연합회(회장 박기연 장로)는 8월 7일(수) ~ 9일(금)까지 2박 3일간 경북 경주와 포항 그리고 강원도 삼척 및 강릉에서 2024 광림 남선교회 여름수련회를 열었다.

남선교회 임원들을 중심으로 20가정, 총 36명이 참가한 이번 수련회는 그동안 열심히 수고한 것에 대한 보상과 함께 편안한 휴식을 통해 새롭게 영적 성장을 일으키기 위해 실시되었다.
처음 계획했을 때에는 몇 군데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서로 격려와 위로하는 시간을 가지려 했지만, 일정의 변경이 있어 대신 자체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박기연 장로의 주관으로 총 세 차례의 예배를 드렸다. 첫째 날 개회 예배에서 박 장로는 '르하흐를 회복하자'(창 2:7)는 말씀을 전했다. "르하흐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것으로서 강력한 바람이며 생기를 뜻한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외적인 형상뿐만 아니라 영도 불어 넣어 주셨다. 우리가 처음 받은 르하흐는 100%지만 살면서 지칠 때는 하나님의 영이 소멸되는 상황을 맞게 된다. 남선교회 임원들도 전반기 쉼 없이 달려오면서 지치고 영적으로 힘들 때도 있었지만 이번 수련회를 통해 자연을 둘러 보고 예배와 묵상을 하면서 소멸된 르하흐가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다음날에는 새벽기도회가 이어졌으며, 돌아오기 전 폐회 예배를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

맑은 하늘이 갑작스레 비가 내리기도 하는 날씨의 변동이 있었지만 이번 수련회의 테마로 '우리 문화유산 답사'를 정하면서 첫째 날에는 경주의 여러 유적지와 포항 호미곶을, 둘째 날에는 동해안 7번 국도를 드라이브하면서 환선굴과 증산 해수욕장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기암괴석과 출렁다리가 펼쳐지는 삼척 초곡 용굴촛대바위길을 둘러보았다.

안병태 권사(남선교회 문화체육본부장)는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경주의 국보와 문화재들을 바라보며, 광림교회의 전통과 신앙의 유산을 후배와 자녀들에게 잘 물려주고 싶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고 했다.

젊은 스데반 회원 가족과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높았던 많은 참석자들도 모처럼 수학여행 온 학생들 마냥 신나는 모습을 통해 무덥고 습한 날씨를 날려 보낼 수 있었다.

지난해에 이어 부부가 함께 참석한 신명균 권사(21교구장)는 "수련회를 통해 많은 교우들과 함께 신앙의 깊이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고, 공동체의 소중함과 서로를 지지하며 기도하는 것의 중요성을 느끼면서 큰 힘과 위로가 되었다. 또한 다른 참석자들의 간증과 나눔을 통해 서로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목격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 이번에 받은 은혜를 통해 비록 적을지라도 정성을 다하여 나눔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이득섭 기자

청년부

전국 13개 지역 110개 교회 여름성경학교 열어

<2024 광림교회 국내교육선교 1차> 8월 1일 ~ 3일까지 진행

다음 세대 신앙 회복과 해외 선교에 앞장서

2024년 여름, 광림교회 청년선교국에서는 국내·외 아웃리치가 진행 중이다.

국내교육선교 1차 시기인 8월 1일부터 3일까지 광림의 청년들은 부산, 고성, 부안, 익산, 화성, 용인, 가평, 강화, 예산, 충주 등 10개 지역의 미자립교회 아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다.

이번 국내교육선교의 주제는 '기도할래요'(살전 5:16~18)이고 이 주제에 맞춰 모든 프로그램과 교육이 준비되었다.

개회 예배에서는 먼저 신나는 노래와 율동을 이어갔다. 청년들은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제공한 여름성경학교 찬양과 율동을 오랜 기간 연습하여 지역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며 함께 찬양했다. 아이들은 선생님의 지도에 따라 율동하고 분반공부를 하고 레크리에이션과 물놀이, 체육대회, 코스 게임 등을 통해 복음을 배우고 뛰어놀며 신앙공동체의 일원이 되어갔다.

가평 지방의 박주영 감리사는 "가평지방회에서는 교회학교를 운영하면서 여름성경학교를 단독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교회가 거의 없다"라며 "여름성경학교가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데, 광림교회 청년들이 이렇게 와서 도와주게 되니, 매우 감사하다"라고 마음을 표했다.

가평 지역 찬양 인도를 맡은 지영호 형제는 "우리 팀이 더 많이 모였던 이유는 기도하고 마음을 모으는 일이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이라며 "무엇보다 매년 참여하면서 겪을 수 있는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더욱 열심히 기도했다"라고 했다.

광림교회 청년선교국에서 진행하는 국내·외 아웃리치는 7월 18일 ~ 8월 20일까지 진행되며 남은 기간 동안 청년들은 이천, 남양주, 당진과 필리핀, 베트남 아웃리치를 다녀올 예정이다.

광림의 청년들이 가는 곳마다 영적인 부흥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이 있기를 기도하고 있다.

정영욱 전도사(청년부)

<광림 샤이닝키즈> 원아 모집, 말씀 안에서 전인교육

사회봉사관 1층에 있는 <광림 샤이닝키즈>는 광림교회 병설 유치원으로 신앙심 있는 국가 인증 교사진이 5세 ~ 7세를 대상으로 교육하는 유치 교육기관이다.

샤이닝키즈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하루의 시작과 끝을 맺고 있으며, 다양하고 체계적인 전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광림 샤이닝키즈는 성경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한 품성 교육을 지향한다. 최근에는 <좋은 나무 성품 학교> 교재를 채택해 경청, 인내, 긍정적인 태도, 감사, 배려 등 12가지 성품에 대해 체계적으로 교육하여 아이들이 생각과 말과 행동을 바르게 표현하도록 하고 있다.

영어전문 교육기관은 아니지만, 매일 오전 영어 수업이 진행된다. 6세는 주 1회 90분, 7세는 주 2회 90분씩 영어 노래 배우기, 영어 대화하기, 영어 게임, 영어 주기도문 외우기 등 별도의 영어 특화 수업도 하고 있다.

광림 샤이닝키즈는 9월부터 운영 방식이 조금 개선될 예정이다. 현재 유치원 셔틀버스가 없어서 등·하원의 어려움을 겪거나 유치원 오기에 무리가 있던 아이들을 위해 9월부터는 광림교회 근처인 청담동, 압구정동, 잠원동, 신사동에 셔틀버스가 운영된다.

현재 매일 교육국 목사와 오전 예배를 드리고 있으나 앞으로 주 1회는 원어민 목사 영어 예배도 진행될 계획이다.

광림 샤이닝키즈는 한 반에 12명이 정원이며, 5세 베드로 반, 6세 다윗 반, 7세 사무엘 반으로 나뉜다. 매주 수요일은 스페셜 데이로 세계 각 나라에 대해 구체적으로 배우며 기도하는 미션 데이, 예배 퍼포먼스, 야외 학습, 단체 미술 활동, 생일파티, 안전교육, 요리 활동, 말씀 암송 등을 하는 샤이닝키즈만의 특별한 날로 운영된다.

교육 시간은 주중 정규반은 오전 9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이며, 돌봄(자유 선택 활동) 및 특화 방과 후 수업은 5시까지, 연장 보육은 오전 8시 30분부터 6시까지 가능하다.

10월에는 광림 샤이닝키즈를 직접 둘러보며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2025년 원아 모집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 문의 : 광림 샤이닝키즈 (02-2015-1101)

박희윤 기자

제36회 호렙산 기도회

도와주시는 하나님

작년 호렙산 기도회는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와 저의 부족하고 모자란 모습을 깨닫게 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남편이 신앙생활하는 데 어려움을 주고 반대가 있어서 늘 남편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남편의 퇴직이 가까이 오면서 영혼 구원 기도에 빨리 응답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호렙산 기도회에 오르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호렙산 3일째, 저는 남편의 반대로 더 이상 오를 수 없게 되었는데 꼭 올라야 하겠다는 생각으로 반대하는 남편을 몰래 속이고 성전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제 마음은 40일 완주를 하고 싶었지만 10일 정도 지날 때쯤 남편이 알게 되어 결국 성전에서 더 예배하지 못하고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남은 호렙산 기도회에 참여했지만, 이것 또한 은혜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호렙산 기도회에서 기도하는 제 모습이 야곱과 같다는 걸 깨닫게 하셨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겠다며 어떻게든 올라오려 했던 저의 모습이 야곱과 같았음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중보기도 해 주시는 분들을 통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보게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때 저는 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그대로 저와 함께해 주셨고 도와주셨으며 붙들어 주셨습니다.

이번 호렙산 기도회 때 성전에서 기도하며 김선도 감독님께서 설교하시는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2년이 넘도록 취업이 안 됐던 작은아들이 작년 8월에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응답을 받고자 올랐던 호렙에서 하나님께서는 작은아들의 취업 문부터 열어 주셨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또한 저를 위해 기도해주신 동역자들의 사랑의 중보가 있었기에 기도 응답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붙들고 계속 기도하기를 다짐합니다. 저희 가정의 영혼 구원도 하나님의 때에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지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김수진 권사(3교구)

저는 주 안에서 안전합니다

가나안 성도가 되어 목자 잃은 양처럼 이 교회 저 교회를 방황하던 몇 년 전, 집 근처 광림교회 호렙산 기도회에 처음 갔습니다. 그 이른 새벽에 버스를 타고 멀리서 오는 성도님들을 보고 '이 교회는 정말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하나님이 보시고 참 기뻐하시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나도 다니던 교회를 다시 가야 하지 않을까?' 막연하게 생각하면서 우선 발걸음이 이끄는 대로 광림교회 예배에 계속 참석했습니다.
지금은 왜 그때 진작 교회 등록을 하지 않았을까 후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손님처럼 참석했던 호렙산 기도회를 통해서 제 마음을 붙잡아 주셨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는 광림교회에 정식으로 등록하고 정착했습니다.
올해 비로소 교회에 돌아왔다는 안도감, 소속감, 그 안에서 보호하심을 느끼면서 눈물과 감사로 호렙산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고, 만나길 원했습니다. 교회를 떠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외롭고 갈급한 것인지 알기에 호렙산 기도회에서 맘껏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친정아버지는 병환 중에 CTS를 통해 광림교회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그 교회에서 제2라운드의 신앙생활을 시작하다니 참으로 감격스러웠습니다. 광야 같은 신앙생활 중 나 홀로 처음 경험했던 호렙산 기도회도 기쁨과 은혜가 넘쳤지만,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기도의 응답을 받으며 함께하는 지금의 호렙산 기도회는 넘치는 은혜와 감사로 제 삶의 우선순위가 되었고 이 기간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실로 엄청나서 매일 감격하고 감사함을 느낍니다.

비록 지금도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남편과 딸이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라는 찬양처럼 당장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기에 저와 우리 가정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호렙산 기도회에 저를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영원히 뺏기지 않을 금보다 귀한 믿음 주시고 새벽에 주님께 기도함으로 저와 온 집안이 축복을 받게 하소서. 저희 가족 모두가 호렙에 오를 날을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만나 주시는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 영광 돌려드립니다. 아멘.

이현정 성도(21교구)

하나님과 첫사랑을 회복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 김현옥은 1959년 충북 영동 산골에서 아버지 김병기 어머니 김화자의 2남 4녀 중 둘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가난했지만 오손도손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농사일을 하셨고 종교는 유교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산골에서 유아 시절과 청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1979년, 지인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였고 1980년 딸 정은이, 1981년 아들 종완이를 선물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1981년, 압구정동 주택가 놀이터에서 아이들과 놀고 있을 때 우리 아이 또래 엄마의 전도를 받아서 광림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3년 동안 교회를 섬기던 때에 저희 가정은 압구정동에서 월세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쯤에 하나님께서 강동구 고덕동 아파트 분양을 받도록 도와주셨고 그곳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교회와 거리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은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이어 오금동에 큰 다가구 건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건물 전체를 구입하여 그곳의 전체 세대를 전도하였습니다.
물질이 풍족해질 무렵, 내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교회는 차차 멀리하고 교만이 생활에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남편은 교회 출석을 멈추고 가정예배가 중단되었습니다. 점점 돈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멀리하던 중 IMF로 인해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다가구 건물을 처분하고 위례신도시로 이사를 해서 살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신앙을 회복했습니다. 새벽기도가 살아나고 호렙산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였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현옥아 내 사랑이 부족하냐?"라고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주님,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하며 날마다 날마다 주님을 뜨겁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신앙이 회복되고 자녀들의 가정예배가 살아났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새벽 3시 30분에 교회 버스에 몸을 싣고 찬 공기를 코끝에 담고 성전으로 달려갑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이 넘치나이다! 주님, 눈물로 매일 매일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김현옥 집사(11교구)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저는 20여 년 전 IMF로 집안 사업이 어려워진 상황에 엄마, 동생과 함께 광림교회에서 처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첫 예배 때 고(故) 김선도 감독님의 십일조에 대한 설교를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까지 교회는 다니고 있었지만 믿음이 탄탄하지 않았는데, 김선도 감독님의 설교는 십일조에 대해 무지했던 부분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날부터 온전한 십일조를 드리기 시작했고, 저와 저희 가정은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시작으로 저희 가족이 평생 해온 사업을 일부 정리하고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과 현실적인 고난이 지속되면서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지만, 현실은 더 어렵게 되었습니다.

호렙산 기도가 시작되고 새벽에 교회를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갈등하던 중, 초등학교 3학년 딸아이가 새벽에 일어나 예배 준비를 하는 것을 보고 그 순수한 믿음에 자극받았습니다. 주말마다 호렙산에 오를 때 하나님께서 건강도 허락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호렙산에 오르면서 처음에는 내가 힘든 부분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현실에는 별다른 응답이 없으니 제 마음이 점차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기회가 되어 목사님의 대심방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듣던 중에 내가 힘든 상황에 맞닥뜨려 있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고난이라는 마음의 감동이 되었습니다. 예전 신앙으로는 막막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을 견디지 못했겠지만, 지금은 그때의 믿음보다는 성숙해져서 하나님이 고난을 믿음으로 견딜 수 있다고 저를 믿어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호렙산에 처음 오를 때는 내 앞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호렙산에 오르면서 비록 내 문제는 아직 그대로이지만 그 모든 걸 아시고 결국 승리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호렙산을 오르면서 고난 중에 가까이 계시는 주님을 깨닫게 해주시고 언제나 제 곁에 계시는 주님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구현지 성도(26교구)

목회현장

믿음의 분량을 쌓다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롬 8:13~14)

연로하신 권사님이 큰 수술을 앞두고 계셔서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아무 말 없이 호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쪽지를 꺼내 보여주시며 아주 환하게 웃으시는데, 쪽지에 적힌 글귀는 바로 위의 성경구절이었습니다.
저도 환하게 웃으며 생각했습니다. '연단의 열매구나. 성도에게 가장 큰 열매는 세월 속에 얼마만큼 하나님을 경험하는가이구나'

세상에서 무언가를 배우려면 적어도 두 가지, 돈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도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에는 반드시 한 가지가 필요한데 그것은 시간입니다.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배울 수 있습니다.

얼마만큼 십자가 앞에 엎드려 주님과 연결되고 있는지, 얼마만큼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지, 그럼으로써 더 많은 믿음의 눈금을 그어가기 마련입니다.

36회 호렙산기도회를 보내며 건너편에 앉으신 권사님과 '기도하는 시간' 싸움을 했습니다. 권사님은 여전히 이 사실을 모르시고, 저 혼자만의 싸움을 했습니다.

물론 분량이 본질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분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본질을 채울 확률은 높아집니다.
그렇게 분량을 쌓고 쌓다 보면 내 손에 쥐고 있는 삶의 주도권을 내려놓는 연습이 되고, 주께로부터 해결 받는 연습이 됩니다. 그렇게 연단의 열매로 환한 웃음과 믿음의 기도가 우리 입가에서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광림남교회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시간을 내고, 예수를 경험하고 성령을 경험하는 일에 세월을 보낼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있는 일임을 알기에 기꺼이 투자하고 헌신할 것입니다.

윤사무엘 목사(광림남교회 1선교구)

축구공을 통해 시골교회 주일학교를 세우다

나눔의 집 - 이항로 권사

광림교회 '나눔의 집'을 통해 150개가 넘는 교회에 의류, 신발 등을 제공하며 재정적 자립을 돕고 있는 이항로 권사가 25년 넘게 펼치고 있는 또 다른 선행이 있다. 바로 농어촌 교회의 어린이들에게 축구공과 유니폼을 선물하며 미자립교회 주일학교를 세우기 위한 노력이다. 의류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고 있는 이 권사를 만나 보았다.

축구공 사역을 하게 된 계기는?
2006년쯤 월악산에 갔다가 충북 제천에 있는 송계감리교회에 방문한 적이 있어요. 작은 교회였지만 예배당 앞에는 3~4명의 아이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교회학교에 아이들이 넘쳐나면 지역 교회도 살아나겠구나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아이들에게 "여러분, 축구 좋아하죠? 친구를 전도해서 13명을 모아오면 축구공을 줄게요. 13명이 되면 연락주세요"라고 제안했습니다.

축구는 시골 교회에서 별다른 장비 없이 넓은 땅과 공 하나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좋은 스포츠였습니다. 게다가 축구공을 받으려면 후보 포함 13명의 아이들이 교회에 나와야 되고, 자연스럽게 전도로 이어졌습니다. 3주 뒤 아이들로부터 13명을 모았다는 연락을 받았고 약속대로 축구공을 선물했어요. 그렇게 '축구공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결실을 거두셨나요?
제천 송계교회, 충주 큰사랑교회, 군산 행복한교회, 마석 가까운교회, 세종시 임마누엘교회, 인천 단비교회, 안양 예심교회, 은평 성지교회, 영월 주천교회 등이 축구공 지원을 받아 유소년 축구단을 창단했습니다. 이 미자립교회들은 어린이도 늘어났지만, 어른 성도들까지 증가하면서 자립교회로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또한, 청소년들이 PC방에서 게임에 빠지지 않고 운동을 통해 관계성과 인성까지 겸비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 되니 부모들도 기뻐하더군요.

축구팀 창단 후 6개월이 넘으면 축구화와 유니폼도 전달하고 있으며 현재 교회학교 축구팀은 17곳이 되었습니다.

선교활동을 통해 느낀 보람은?
요즘 시골에 가보면 아이들이 많이 줄었고 교인들의 교회 출석률도 저조합니다.
하지만 미자립교회에 관심을 가져주고 정성을 모아 후원하게 된다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축구 덕분에 교회학교 아이들이 많아지고 아이 부모까지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듣노라면 큰 보람을 느낍니다. 건강만 허락된다면 이 사역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소망이 있다면?
평생 의류업에 종사했던 노하우와 달란트를 가지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혼자 가는 길은 외롭고 힘듭니다. 하지만 주님과 동행하면 외롭지 않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맡겨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유병권 기자

한눈에 명화로 보는 신약성경 이야기 5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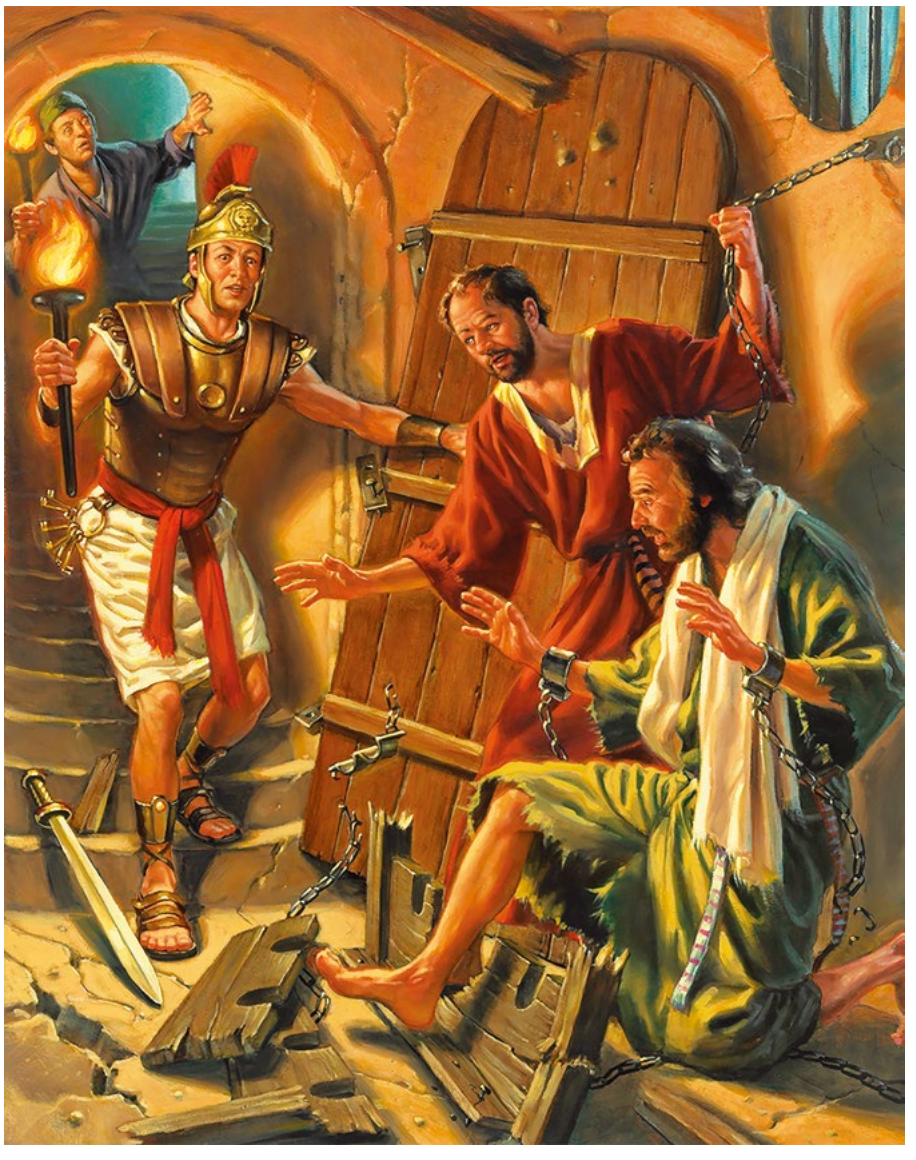
바울의 전도와 기독교인이 된 간수 ③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행 16:29~32)

그러자 그 명령대로 귀신이 떠나고, 그녀는 제정신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그 여인이 다시는 점을 치지 못하자 그 주인이 바울 일행을 찾아와 따지고 들었다. 그는 자신의 돈벌이가 되는 사업을 못하게 되자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광장으로 끌고 가서 소란을 부렸다. 그리고 로마 법정으로 끌고 가서 고발했다.
"이 사람들은 평화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로마법과 질서를 파괴하는 위험한 유대인들입니다."
로마인 재판관들은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 벗기고 그들에게 공개 태형(笞刑)을 지시했다.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가혹하게 때린 후 간수에게 명령했다. "이 사람들이 탈출하지 못하도록 단단히 지켜라!"
명령을 받은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감시가 가장 삼엄한 감옥에 가두고, 발에는 족쇄를 채웠다. 밤이 깊었다. 바울과 실라는 온몸이 피투성이인 채로 고통스러웠지만, 기도하며 힘차게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들은 주님을 믿기 때문에 받게 되는 핍박에도, 주님을 위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와도 감사의 기도와 찬송이 나왔다. 그때 난데없이 큰 지진이 일어났다. 감옥이 흔들리며 감옥 문이 모두 열렸고, 죄수들을 결박한 족쇄도 모두 풀렸다. 바울과 실라도 자유로워졌다. 갑작스러운 지진에 죄수들은 놀라 어둠 속에서 우왕좌왕하였다. 또한, 간수는 자다가 놀라서 깨었다. 그는 죄수들이 탈출한 줄 알고, 어차피 자신은 죽은 목숨이라는 생각에 칼을 뽑아 자결하려고 하였다.
그때 바울이 그를 말리며 소리쳤다. "당신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시오. 우리가 모두 여기 있습니다. 아무도 달아나지 않았습니다!"
간수가 횃불을 들고 급히 안으로 들어가 보니 중요한 죄수인 바울과 실라는 족쇄가 풀린 채 감옥에 그대로 있는 것이었다. 그는 두 사람을 감옥 바깥으로 데리고 나와서 물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바울이 간수에게 대답했다. "주 예수를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당신과 당신 집이 구원을 얻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간수와 그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고,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날 모두가 꼬박 밤을 새웠다. 간수는 바울과 실라의 상처를 싸매 주고, 편히 쉴 수 있도록 했다. 그러고 나서 그와 가족 모두가 세례를 받았다. 이어서 음식을 준비하여 두 사람을 극진히 대접하였다. 잊지 못할 밤이었다.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었다. 모든 사람이 기뻐하며 잔치를 벌였다.

▲ **구원을 청하는 간수_**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후, 바울과 실라에게 죄를 회개하면서 구원의 방법을 묻는 장면이다. 작자 미상

다음 날, 동이 트자 재판관들이 관리들을 보내어 지시했다. "그 사람들을 풀어 주어라."
간수는 기뻐서 바울에게 그 말을 전했다. "재판관들에게 지시가 왔습니다. 이제 선생님들은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그러나 바울은 꿈적하지 않은 채 관리들에게 말했다. "그들은 로마 시민인 우리를 죄목도 없이 공개적으로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아무도 모르게 우리를 내보내겠다는 말입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를 내보내려면, 그들이 직접 와서 환한 대낮에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관리의 보고를 받은 재판관은 당황했다. 그들은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인 줄은 전혀 몰랐다. 당시 로마인이나 그 시민권자를 정당한 재판절차 없이 체포하고 투옥하는 것은 불법이었다. 그들은 급히 와서 두 사람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석방하였다.
감옥에서 나온 바울과 실라는 곧장 루디아의 집으로 가서 동료들을 만나 믿음 안에서 그들을 격려하였다. 이처럼 성령에 충만한 바울과 실라의 헌신에 빌립보 교회는 자리 잡아갔다.



◀ **바울과 실라_**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의 모습으로, 그들이 주님을 찬양하자 감옥 문과 족쇄가 풀리는 장면이다. 작자 미상

그 후 바울 일행은 빌립보를 떠나 데살로니아를 거쳐 베뢰아와 아테네까지 이르는 동안 복음을 전하였다. 헬라의 수도인 아테네는 교육과 문화의 중심도시였다. 바울은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였다. 그의 깊은 지식과 이론이 접목된 복음 전도에 많은 사람이 믿기도 하였으나 헬라 학자들의 반론에 열띤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바울은 아테네에 머물며 복음을 전하다가 고린도(스파르타)로 선교지를 옮겼다.
고린도에서도 유대인 반대자들의 핍박을 받았고, 바울은 그들에게 '당신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니 앞으로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선포할 지경이었다. 물론 복음 전파는 계속되었고, 회당장 그리스보와 그의 가정이 구원을 받았다. 또 회당 옆에 사는 디도 유스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한동안 바울은 디도 유스도의 집에 머물렀다.

어느 날 밤, 주님이 바울의 꿈에 나타나 그에게 용기를 주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를 해칠 수 없다. 이 도시에 내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너는 모른다."
이에 바울은 용기를 얻어 끝까지 견디면서 고린도에서 일 년 반을 더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그 후 바울은 지중해 동편의 에베소로 떠났다. 이곳에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바울을 따랐다.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은 가이사랴를 거쳐 그가 출발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갔다. 2차 선교 여행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말씀이 들려오는 듯했다.

*문의 : 빛의 숲 서점 (02-2056-5771)

광림 뉴스레터

편집인 황지수 | 위원장 박영준 | 편집디자인 유세나 | 후원 남선교회총연합회 실업인선교회
기자 | 김혜경 박희윤 백명순 변영혜 소현수 안미영 유병권 위선미 이득섭 이상희 이정순 한혜선 | 편집 문화홍보실 | 인쇄 현대원색문화사
www.klmc.church 에서 광림 뉴스레터를 볼 수 있습니다.